

2015. 8. 29. 국가직 7급 국어 총평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정채영

2015년 국가직 7급 시험은 ‘문법, 어휘, 독해’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각 영역의 문제 배열은 국가직 9급 문제의 유형과 흡사하고, 난도는 조금 높게 출제되었다. 7급 시험의 경우 한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시조를 제시하고 이의 주제와 유사한 문장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적절한 배치라 할 수 있다. 영역별 출제 유형을 살펴보자.

문법 영역은 9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론 문법 중에서 품사론 2문제, 문장론 2문제, 의미론 1문제, 정서법 2문제, 그리고 어문 규정에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띄어쓰기를 포함한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 문법 영역은 공무원 시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분야이며 교육과정의 흐름도 문법 영역을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영역은 정확히 학습해 두어야 한다.

어휘 영역은 3문제가 출제되었다. 우리말을 포함한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찾으라는 문제와 한자어의 적절한 쓰임 그리고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의 찾기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었다.

독해 영역은 8문제로 비문학이 5문제, 문학이 3문제 출제되었다. 비문학 독해는 사실적 정보의 확인,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단락의 적절한 배열과 접속어의 쓰임 그리고 추리 상상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다. 문학 독해는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와 시조의 주제를 찾는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되었다.

이제까지 치열하게 공부한 수험생들! 한번 숨을 크게 쉬고 앞을 바라보기를! 항상 고개를 숙이고 책만 바라보았으니, 이제 고개를 들고 잠시 동안 자신에게 잘 해냈다고 칭찬의 말을 해 주기를! 그리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1. 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흔들바위, 굿감
- ② 새언니, 척척박사
- ③ 길짐승, 높푸르다
- ④ 어린이, 가져오다

정답 ④

해설 ‘어린이’는 ‘나이가 적다’를 의미하는 형용사 ‘어리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과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가 이어진 구성으로서 ‘어리+ㄴ+이’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가져오다’는 어간 ‘가지-’에 어미 ‘-어’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어간 ‘오-’에 어미 ‘-다’가 이차적으로 결합한 구성으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① ‘흔들바위’는 부사 ‘흔들’이 체언 ‘바위’를 수식하는 형태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굿감’의 ‘굿’이 가진 의미는 ‘꽃다’이다. 현대어의 ‘꽃다’는 옛말에서 ‘꽃다’인데, ‘굿감’은 이 ‘꽃다’의 어간 ‘꽃-’에 ‘감’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새언니’는 ‘새+언니’와 같이 ‘처음 마련하거나 다시 생겨난’을 의미하는 관형사 ‘새’에 ‘언니’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척척박사’의 구성은 ‘일이 거침없이 아주 잘되어 가는 모양’을 이르는 부사 ‘척척’이 체언인 ‘박사’를 수식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길짐승’의 ‘길’은 ‘기다’의 어간 ‘기-’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활용형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높푸르다’는 어간 ‘높-’에 어미가 생략된 상태에서 어간 ‘푸르-’와 어미 ‘-다’와 결합하는 구성으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4. 높임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아버지께서 이제야 집에 가시는군요.
- ② 당신은 제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군요.
- ③ 이것이 바로 생전에 당신께서 가장 아끼던 벼루입니다.
- ④ 우리 사장님께서 뵙기를 청한 이유는 고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정답 ②

해설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경우는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씀'을 쓴 올바른 문장이다.

- ① '집'을 '댁'으로 고쳐야 바르다. 이는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낱말로 간접 높임을 실현하여 '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③ '아끼던'을 '아끼시던'으로 고쳐야한다.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 '아끼시던'을 써야 주체 높임을 실현한 올바른 문장이 된다.
- ④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대명사 '저희'를 써서, '저희 사장님'과 같이 쓸 수 있다.

5.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회초리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다.

- 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
- ② 금 간 자리를 흠으로 말끔히 메웠다.
- ③ 그는 적성에 맞는 자리를 구하고 있다.
- ④ 방이 좁아서 책상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

정답 ②

해설 “회초리에 맞은 자리”의 ‘자리’는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어떤 변화를 겪고 난 후 남은 흔적.”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②의 “금 간 자리”에서 ‘자리’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

- ① “높은 자리”의 ‘자리’는 “일정한 조직체에서의 직위나 지위.”를 뜻한다.
- ③ “적성에 맞는 자리”의 ‘자리’는 일정한 조건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흔히 일자리나 흔처를 이른다.
- ④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의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의미로 쓰였다.

6. 밑줄 친 부분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나는 구두를 벗으면서 ‘죽었으면 나 안 가기로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시험 보는 사람더러 나오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공연히 ㉠ 불뚝하는 심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돈은 그달 학비까지 ㉡ 얼러서 백 원이나 보내왔다. 병인은 죽었든 살았든 하여간에 돈 백 원은 반가웠다. 시험 때는 당하여 오고 ㉢ 미구에 과세(過歲)를 하려면 돈 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환이 있는 집에다 대고 절없이 돈 청구만 할 수도 없어 걱정이 판에 마침 ㉣ 생광스럽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 갑자기 화가 나는
- ② ㉡: 무턱대고 요구하여서
- ③ ㉢: 오래지 않아 설을 쇠려면
- ④ ㉣: 아쉬운 때 요긴하게 쓰게 되어 보람이 있다

정답 ②

해설 ㉠의 ‘어르다’는 “몸을 움직여 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준다.”는 뜻이다.

- ① ㉠ ‘불뚝’은 ‘무뚝뚝한 성미로 갑자기 성을 내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 ② ㉡ ‘미구(未久)’는 ‘얼마 오래지 아니함.’의 뜻이고, ‘과세(過歲)’는 ‘설을 쇠.’의 뜻이다.
- ③ ㉢ ‘생광(生光)스럽다’는 “영광스러워 체면이 서는 듯하다./아쉬운 때에 요긴하게 쓰게 되어 보람이 있다.”의 뜻을 가진다.

<참고>

「만세전」은 염상섭(廉想涉)이 지은 중편소설이다. 원제는 ‘묘지(墓地)’로, 1922년 《신생활》에 연재되다가 잡지의 폐간과 함께 3회 연재로 중단되었다가, 1924년 《시대일보》가 창간되면서 제목을 ‘만세전’으로 바꾸어 개재되었다. 주인공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과 당시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7. 다음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빨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시적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을 통해서 순리에 대한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이 시는 시적 대상인 ‘봄’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 ① 이 시의 ‘너’는 봄을 의미하며,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자 겨울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계절을 의미한다.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을 통해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너를 보면 눈부셔”에서 예찬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 ④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에서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봄이 오는 것의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주제: 봄의 도래에 대한 갈망과 강한 신념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로 화자의 믿음을 강조한 시로 대상을 의인화하여 미래의 상황을 현재형으로 표현하였다. 현실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너’를 기다리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신념을 표현하였다.

8.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어느 한 시대의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개별 한자들이 수입된 시차에 따라서 여러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 음운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 한자음을 영어로는 ‘Sino-Korean’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학교’라고 발음할 때, 중국인도 일본인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한 그것이 ‘xuéxiào’나 ‘がっこう’인 줄을 알아차리기는 힘들다.

- ① 한국 한자음의 특성
- ② 한국 한자음의 역사
- ③ 한국 한자음의 기원
- ④ 한국 한자음의 계통

정답 ①

해설 접속어 '그러나' 이후에 중심 내용이 들어 있다. 첫 번째 '그러나' 뒤에는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는 것이다."를 제시하여 한국 한자음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그러나' 뒤에는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한국 한자음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9. 다음 글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형은 사람처럼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구경하던 후궁들에게 윙크를 하며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다. 인형의 추태에 화가 난 목왕이 그 기술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해체했고 그제야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다.

(㉠) 어느 날 서쪽 지방으로 순행을 나간 목왕은 곤륜산을 넘어 돌아오는 길에 채주가 뛰어던 기술자를 만났다. 목왕은 그 기술자에게 그가 만든 가장 훌륭한 물건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물건이 아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목왕이 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묻자, 그는 이것이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답했다. (㉡) 이에 놀란 목왕은 그 인형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 그것은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였다. 하지만 그것은 오장육부는 물론 뼈, 근육, 치아, 피부, 털까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마침내 목왕은 그에게 "자네 숨씨는 조물주에 버금가도다!"라고 크게 칭찬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핵심 정보는 '인형은 사람처럼 행동했다.'와 '인형의 실체'이다. '인형은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정보는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문장의 뒤에 이어 주면 되고, '인형의 실체'는 "그것은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장치였다." 앞에 넣어 주면 적절한 문단 구성이 된다. 그러므로 제시문이 들어가야 할 곳은 '㉢'이다.

1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는 ‘경건한 종교음악가’로서 천직을 다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소를 라이프치히라고 생각하여 27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칸타타를 써 나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실은 7년째에 라이프치히의 칸토르(교회의 음악감독)직으로는 가정을 꾸리기엔 수입이 충분치 못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다른 궁정에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에 걸맞게 ‘하늘이 이 위대한 작곡가의 죽음을 비통해하듯’ 천둥 치고 진눈깨비 흩날리는 가운데 장례식이 행해졌고 그 때문에 그의 묘지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 이러한 이야기는 빈 기상대에 남아 있는 기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만년에 엄습해 온 빈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걸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그 정도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최근에는 도박벽으로 인한 빈곤설을 주장하는 학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 ① 바흐는 일이나 신앙 못지않게 처우를 중시했다.
- ② 바흐는 생애 중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하였다.
- ③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당일 빈의 날씨는 곳었다.
- ④ 모차르트의 작품 수준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반비례했다.

정답 ①

해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바흐의 “수입이 충분치 못해서~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으로 보아 바흐는 일이나 신앙 못지않게 처우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두 번째 문장에서 라이프치히의 칸토르직에 종사한 지 7년째부터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고 했지만, 그만 두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므로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는 말은 옳지 않다.
 ③ 네 번째 문장에서 모차르트의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빈 기상대에 남아 있는 기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는 문맥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④ 마지막 문장에서 모차르트의 실제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고 했으므로, 작품 수준과 경제적 상황이 반비례했다는 것은 문맥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11. 밑줄 친 한자가 문맥상 바르게 쓰인 것은?

1차 ‘휴머니스트 선언’이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 나치즘은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야만성의 극한적인 ㉠ 型態를 드러내었으며, 여타의 전체주의 정책들 또한, 빈곤 상태를 ㉡ 槌放하지도 못하면서 인권만 ㉢ 蹂躪했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 整體를 가진 사회에서까지도 과학을 악용한 경찰국가의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③

해설 ㉠ ‘蹂躪(유린)’은 ‘蹂(밟을 유), 躪(짓밟을 린)’으로 남의 권리나 인격을 짓밟음을 이르는 말이다.
 ① ㉡ 形態(형태): ‘形(형상 형), 態(모양 태)’로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또는 어떠한 구조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체가 일정하게 갖추고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짚(거푸집 형)’이 아니라 ‘形(형상 형)’으로 고쳐야 한다.
 ② ㉢ 追放(추방): ‘追(쫓을 추), 放(놓을 방)’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을 이르는 말이다. ‘植(마치 추)’가 아니라 ‘追(쫓을 추)’로 고쳐야 한다.
 ④ ㉣ 政體(정체): ‘政(정사 정), 體(몸 체)’로 국가의 통치 형태를 이르는 말이다. ‘整(가지런할 정)’이 아니라 ‘政(정사 정)’으로 고쳐야 한다. 한편 ‘整體(정체)’는 지압이나 안마 따위로 척추뼈를 바르게 하거나 몸의 상태를 좋게 한다는 뜻이다.

12. 맞춤법에 맞는 것은?

- ① 뒷뜰에 있는 옥수수나 따서 가져올게.
- ② 짐작건대, 그 사람은 야속다고 꾸념만 한 것 같아.
- ③ 거름을 다 처내고 나서 어르신을 뵈러 길을 떠난대요.
- ④ 답을 얻기 위해 눈 덮힌 산야를 하염없이 헤매고 있을 거야.

정답 ②

해설 ‘ㄱ, ㅂ, ㅅ’ 등과 같은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는 ‘하’가 완전히 줄므로, ‘짐작하건대’의 준말은 ‘짐작건대’의 형태로, ‘야속하다고’의 준말은 ‘야속다고’의 형태로 쓴다.
 ① ‘뒷뜰’이 아니라 ‘뒤뜰’이다. ‘집체의 뒤에 있는 뜰’을 뜻하는 ‘뒤뜰’은 ‘뜰’이 이미 된소리로 소리 나고 있어 별도의 표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뒤뜰’을 표준어로 삼았다.
 ③ ‘쳐내고’가 아니라 ‘쳐내다’이다. ‘쳐내다’는 ‘불길이나 연기 따위가 쏟아져 나오다.’는 뜻이고, ‘쳐내다’는 ‘깨끗하지 못한 것을 쓸어 모아서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쳐내다’를 쓰는 것이 바르다.
 ④ ‘덮힌’이 아니라 ‘덮인’이다. ‘덮다’의 피동사는 ‘덮다’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된 ‘덮이다’이므로 ‘눈 덮인’으로 고쳐야 한다.

13.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것은?

- ① 어느 학교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 ② 손에 익은 연장이라서 일이 빨리 끝나겠다.
- ③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 ④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답 ③

해설 ‘정부에서’는 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다.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주격 조사로 ‘에서’가 쓰여, ‘정부’가 문장에서 주어가 됨을 나타내고 있다.
 ① ‘동창회에서’, ② ‘손에’, ④ ‘마음에’는 각각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였다.

14. 밑줄 친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단혀진 마음을 열 길이 없구나.
- ② 저쪽 복도에 놓여진 화분은 엄청 예쁘구나.
- ③ 그 토의에서 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결국 뭐지?
- ④ 장마로 인해 끊겨진 통신 선로가 드디어 복구되었군요.

정답 ③

해설 '다른 사람의 요구, 성의, 말 따위를 들어주다'는 뜻을 지닌 '받아들이다'의 피동 형태로 '받아들어지다'를 쓸 수 있다.

- ① '닫다'에 피동접사 '히'가 결합하고, 이에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다시 연결되면 '닫혀지다'가 되는데 여기서 '닫혀지다'는 이중 피동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닫힌'으로 고쳐야 한다.
- ② '놓다'에 피동접사 '이'가 결합하고, 이에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붙어 형성된 '놓여진'은 이중 피동이다. '놓인'으로 고쳐야 한다.
- ③ '끊다'에 피동접사 '기'가 결합하고, 이에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어지다'가 붙어 형성된 '끊겨진'은 이중 피동으로, 이는 '끊긴'으로 고쳐야 한다.

15. 다음 시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지아비 받 갈나 간 덕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디 눈썹의 마초이다.
친코도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 ① 夫婦愛而敬之, 相待如賓.
- ②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 ③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 ④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주세붕(周世鵬)이 지은 오륜가(五倫歌) 중 한 수이다.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조로, 현대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지아비 받 갈러 간 곳에 밥 광주리를 이고 가서 / 밥상을 드리되 눈썹까지 맞춰 바칩니다. / 진실로 고마운 분이시니 손님과 다르겠습니까?" ①의 "夫婦愛而敬之 相待如賓 (부부애이경지 상대여빈)"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공경하여 마치 손님처럼 대한다.'는 뜻으로 김시습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에 나오는 시 구절이다.

- ②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생아자부모 지아자포자야)"는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는 말로 관중(管仲)이 포숙(鮑叔)에 대한 고마움을 회고하면서 남긴 말이다.
- ③ "會桃李之芳園 序天倫之樂事 (회도리지방원 서천륜지락사)"는 '복숭아꽃 자두꽃 활짝 핀 동산에 모여 형제들(天倫)끼리 즐거운 일을 펼친다'는 뜻으로,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 중 한 구절이다.
- ④ "三顧臣於草廬之中 諮臣以當世之事 (삼고신어초려지중 자신이당세지사)"는 제갈량의 출사표(出師表)에 나오는 말로 '세 번이나 신을 초가집 안으로 찾으시어 신에게 당세의 일을 자문하셨습니다.'는 뜻을 가진 문장이다.

16. 밑줄 친 부분 중 띄어쓰기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난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그는 나와 동창인바 그를 잘 알고 있다.
- ② 사람은 항상 배운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규범대로 움직여야 타인의 지탄을 받지 않는다.
- ③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 밖에.
그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 ④ 업무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화합에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첫 번째 문장은 ‘떠날밖에’로 붙여 써야 한다. ‘밖에’가 ‘그것 말고는’의 뜻을 나타낼 때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두 번째 문장은 ‘그 밖에’로 띄어 써야 한다. ‘밖’이 ‘외(外)’의 의미를 가지면 명사이므로 ‘그 밖에’로 띄어 쓴다.

- ① 의존 명사 ‘바’는 앞말과 띄어 쓰고, 어미 ‘-나바’는 어간에 붙여 쓴다. ‘말한 바’의 ‘바’는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의존 명사이고, ‘동창인바’의 ‘-나바’는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는 어미이다.
- ②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대로’가 ‘배운 대로’처럼 용언의 관형사형의 꾸밈을 받을 때는 의존 명사이다. ‘대로’가 ‘규범대로’처럼 체언 뒤에 올 때는 조사이다.
- ④ ‘뿐만’은 ‘의존 명사’와 ‘조사’, 두 가지가 있다. ‘의존 명사’는 주로 어미 ‘-을’ 뒤에 쓰이며, 조사는 ‘체언’ 뒤에 쓰인다. ‘다할 뿐만’의 ‘뿐만’은 ‘다할’에 어미 ‘-을’이 쓰였으므로 의존 명사이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의 ‘뿐만’은 조사 ‘뿐만’ 뒤에 조사 ‘-만’이 붙고, 그 뒤에 ‘아니다’의 활용형 ‘아니라’가 이어진 것이다.

17. 다음 발화가 사용되는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도 경기도 말, 충청도 말, 강원도 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제주도 말 등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어(地域語)가 존재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요소 및 구성 집단의 기질과 성격 등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반영되고 변모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어는 해당 지역과 그 구성원의 정체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케 한다면 이는 타 지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타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민을 차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타 지역의 구성원에게 정서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① 우리말의 올바른 용법을 강조하는 강연에서
- ②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주장하는 학술 발표 대회에서
- ③ 지역어의 종류와 그 특징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 ④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변론에서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서 접속어 ‘따라서’의 뒤를 살펴보면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어가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하는 것은,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원활한 소통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며, 갈등과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는 표준어 정책을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

- ① 시적 화자의 현실 비판적 의도가 엿보인다.
- ② ‘뜻’과 ‘낱’은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절제된 태도로 대상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상한 새’는 자연이나 순수한 삶의 파괴를 의미한다.

정답 ②

해설 ‘뜻’은 인간의 인위적인 꾸밈 또는 가식을 상징하고, ‘낱’은 물질문명 또는 인간의 비정함을 상징하고 있어서 대조적인 의미로 볼 수 없다. 대조적 시어로는 ‘새’와 ‘포수’를 들 수 있다.

- ① 시적 화자는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통해 생명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감정을 배제하고, 절제된 태도로 대상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상한 새’는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된 자연을 상징한다.

<참고>

주제: 자연의 순수함을 파괴하는 인간의 문명 비판

표현상의 특징: 이 시는 순수 세계를 상징하는 '새'와 인위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포수'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문명 비판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1연의 마지막 시행은 도치법을 써서 의미를 강화하고 있으며, 3연에서는 문명 비판적인 자세로 자연의 파괴를 고발하고 있다.

19. ㉠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평양전쟁이 격화되자 일제는 식민지 조선 내에서 황국신민화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인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국민' 의식을 주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 '국민'이란 말이 일본 내에서 실제적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은 청일전쟁 이후였다. (㉡) 이 경우 천황 아래 모두가 평등한 신민, 즉 일본의 '국민'으로서 재탄생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명제는 다른 면에서는 '비국민'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 이러한 사정은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하였다. (㉣) '국민' 의식의 강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민족적인 이질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는 심리적인 포섭의 원리인 동시에 '비국민'으로서의 공포감을 동반한 강력한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였던 셈이다.

- | | | | |
|-------|-----|-----|------|
| ㉠ | ㉡ | ㉢ | ㉣ |
| ① 사실 | 그런데 | 그리고 | 요컨대 |
| ② 사실 | 게다가 | 또한 | 그러므로 |
| ③ 실제로 | 또한 | 게다가 | 요컨대 |
| ④ 실제로 | 그러나 | 그리고 | 그러므로 |

정답 ①

해설 '사실'은 '실지에 있어서' 의미를 지니고, '실제로'는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에 들어갈 어휘는 '사실'이 더 적절하다. ㉡의 앞과 뒤는 논지를 보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전환하는 관계이므로 '그런데'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의 뒤에 오는 문장 중 '마찬가지로'라는 부분을 통해 논지를 보완하는 '그리고'가 들어가야 하며, ㉣은 앞에 있던 사실을 요약하고 있으므로 '요컨대'가 들어가야 한다.

20. 촌장의 태도와 관련된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닳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뭐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덩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이강백, 「파수꾼」 중에서 -

- ① 指鹿爲馬 ② 鈞而不綱
- ③ 隔靴搔癢 ④ 牽強附會

정답 ④

해설 '다'의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와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이라는 대화를 통해 촌장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한자성어는 '牽強附會(견강부회)'이다. '牽強附會(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이다.

- ① 指鹿爲馬(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함을 이르는 말. 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하여 보고자 황제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鈞而不綱(조이불강): 낚시질은 하지만 그물질은 안 하다.
- ③ 隔靴搔癢(격화소양):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히 못한 안타까움을 이르는 말.